

제공일자	2012. 12. 4(화)	담당자	조재린 연구위원	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(3775-9051)	연락처	3775-9034 010-9524-0422	총4매

제목 : 『저금리시대, 보험산업 영향과 과제』 기자단 워크숍 개최

1. 워크숍 개최 안내(보험연구원 주관)

□ 배 경

- 저성장·저금리가 장기화되면 보험회사의 이차역마진이 확대되고, 보험수요 위축과 운용수익률 하락 등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.
- 따라서 보험산업의 이차역마진 현황을 파악하고, 향후 금리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,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워크숍을 개최

□ 일시 및 장소 : 2012. 12. 5. (목) 14:00 ~ 16:00
예금보험공사 대강당(19층)

□ 발표 및 토론

- 개 회 사 : 김대식 보험연구원 원장
- 축 사 :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
- 제 1주제 : 미국/일본 보험사의 저금리 영향과 대응사례
(안치홍 밀리먼컨설팅 한국대표)
- 제 2주제 : 저금리 현상에 따른 보험산업 현황 및 과제
(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)
- 토 론 : 학계, 업계, 언론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 및 질의·응답

2. 주요 내용

〈제1주제〉 일본의 저금리 경험은 보험영업의 중요성 부각

- 밀리만컨설팅 안치홍 한국대표는 미국과 일본 보험회사의 저금리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음.
- 일본은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7개 생명보험회사가 파산
 - 버블 붕괴기 급작스러운 자산 부실에 따른 일시적 부담과 이후 저금리기의 보험상품의 마진 감소에 의해 장기적인 부담이 발생
 - 일본은 6% 이상의 고금리가 형성된 시기가 거의 없었으며 순보험료식 준비금을 적립했기 때문에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적어 버블의 붕괴로 인한 자산 부실이 파산의 주원인
- 일본 보험회사는 저금리로 인한 이차역마진을 보험영업 마진으로 상쇄하는데 주력
 - 판매채널의 효율화로 사업비를 절감하였으며, 보증이율의 인하와 보험료 인상, 가격경쟁 완화,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 등 상품혁신으로 이차역마진을 극복
- 미국도 1980년대 후반부터 저금리가 장기화되자 이차역마진으로 1991년 81개 보험회사가 파산
 - 미국 보험회사는 정교한 자산부채종합관리(ALM)로 리스크관리에 뛰어나 상대적으로 금리리스크의 영향이 미미
 - 전통형 상품의 마진 축소를 변액보험 판매 활성화로 보완하면서도 변액보험의 보증리스크 감소를 위해 상품디자인 측면에서 노력
- 안치홍 대표는 저금리에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상품의 수익성이 감소하여 재무상태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것이라며 사업비 절감과 사차익 확보로 마진 하락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

〈제2주제〉 위기상황에 대비한 전사적 대응 필요

- 보험연구원 조재린 연구위원은 과거에 판매한 확정형 고금리상품이 생명보험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함.
 - 지금까지는 자본계정의 투자수익과 보험영업이익을 통해 금리역마진을 보전하고, 금리연동형 보험과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상품구성을 조정하여 준비금 부담금리를 낮추어 왔음.
- 현행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면 저금리가 보험회사에 미칠 영향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나, 위기상황에서는 수익성이 크게 훼손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전사적 대응이 필요
 - 물론 금리가 반등할 경우 이차역마진이 줄어들고 그 지속 여부에 따라 이차역마진이 해소될 가능성도 있으나,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낮으므로 적극적인 저금리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.
 - 향후 저금리가 지속되면, 이차역마진이 확대되면서 자본계정 투자수익과 보험영업이익을 통한 역마진 보전이 한계에 달해 이차손이 발생하고 당기손익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
 - 금리가 현재보다 1% 포인트 이상 하락하여 그 수준이 지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일부 보험사는 당기손실도 발생
- 보험영업 측면에서는 상품구성을 다양화하여 보장성 상품 비중을 높이고 금리연동형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, 유배당 상품의 판매도 활성화
-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안정성을 유지하되 수익 다변화와 병행하여 회사채와 해외채권 등 부채중심 투자를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제고하고, 금리위험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활용도 고려할 필요

□ 건전성감독 강화와 시장의 저금리 대응에 필요한 제도 개선

- 준비금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보험회사의 여력에 맞춰 준비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유도
- 준비금 적립에 적용되는 표준이율이 시중금리 변동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
- 파생상품 활용과 관련된 규제와 해외채권 매입에 관한 규제 등을 개선할 필요

첨부 : 주제 발표 자료 2부. 끝.

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